
인권은 입는 게 아니다

김 주 태

‘옷이 날개다.’ 라는 말을 넘어서 이제는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다. 우리는 사람의 복장을 보고 성향이나 직업을 파악하거나 심하게는 그 사람의 부를 예측하기도 한다. 실제로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단정한 사람에게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심해지면 자칫 옷이 사람의 모든 걸 규정해버리는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첫 직장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나는 부푼 자긍심을 갖고 출근을 하였다. 회사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상하수직관계나 딱딱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 사람들은 정장을 입거나 아주 단정한 단색계열의 복장을 갖추어 입었다. 나 또한 신입사원으로서 기존 선배들보다 더 단정하게 입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정장이나 오피스 룩으로 갖춰 입고 출근을 하였다.

나의 직무는 건설현장의 Project Manager로서 영업부에서 내려온 도면과 설계에 맞추어 설치가 끝날 때까지 안전과 공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는 감독관의 역할이었다. 젊은 나이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현장에서 감독을 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으니 그 자체로 자긍심과 애사심은 엄청났을 것이다.

그런데 본사에서 신입 Project Manager를 대상으로 3개월 간 현장교육을 이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말이 현장교육이지 건설현장의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현장의 업무를 모두 알아야하기 때문에 현장 실무를 경험해보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었다. 그 날 이후 나는 정장 대신 시장에서 싸게 주고 산 바지와 티를 입고 그 위에 현장 작업복을 겹쳐 입었다. 건설현장의 실무는 쉽지 않았다. 한 겨울에 목장갑을 두 겹씩 끼도 추위를 막을 순 없었고, 다양한 자재들을 옮기느라 온몸에는 온통 흙투성이였다.

하루는 그러한 복장으로 은행에 방문하였다. 전세금으로 인해 대출관련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다. 온몸이 흙투성이인 건설현장 일용근무자로 보이는 이 젊은 사람을 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 나는 대출업무를 위해 신분증과 몇 가지 서류를 제출했지만 하나의 서류가 부족하다면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대출 상담하기 위해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서류를 다음에 제출하면 안 되겠냐고 여쭙봤더니 정중히 거절을 당했다.

다음날은 회사에 신규직원 안전교육으로 인해 현장에 가지 않고 사무실로 곧바로 출근하게 되었다. 사무실로의 출근이니 오랜만에 단정히 오피스룩으로 입고 출근을 하였다. 안전교육이 끝난 후 대출을 빨리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어제 갔던 은행에 다시 방문하였다. 그런데 입구에서 안내해주시는 분부터 대출 상담원까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제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어제의 흙투성이 건설현장 일용직인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다. 더욱 놀란 건 어제 찾아놓은 서류를 그 현장작업복 주머니에 넣어놓고 또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은행원은 그 서류 나중에 가져다주시면 처리해 드리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다행이다 싶은 한편 기분이 매우 나빴다. 이것이 바로 인권침해가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 복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란 생각이 들었다. 작은 은행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까?

과거에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군복을 빨리 갈아입고 싶었다. 군복 입은 군인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군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연민과 동정, 혹은 다른 세상의 사람으로 바라본다. 오로지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는 감사한 존재로 바라봐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게 실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요즘 어린 학생들도 그렇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해서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이 복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은 아닌가 싶다. 명품으로 치장한다한들 인간의 권리나 인간의 존엄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닌 대도 말이다.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로 인해 대도심이 형성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였다. 또한 군인들이 자신들의 청춘을 바치며 복무했기 때문에 국가안보가 형성되었다. 이렇듯 어떠한 복장을 입었든,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든 사람은 모두 너무나도 가치는 존재이다. 인권은 복장 하나 때문에 결코 침해받아서 안 될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복장은 사람의 성향과 소속 등을 나타내고 구분할 수 있지만, 결코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가릴 수는 없다. 인권침해는 나와 다르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며, 그러한 시선으로부터 확산된다. 무엇을 입든 어떤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의 권리는 모두 같다.